

한미, 관세 25%→15% ‘극적 타결’…쌀·소고기 지켰다

대통령실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춰”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하기로 합의”
조선 등 3천500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
2주내李大統領-트럼프 정상회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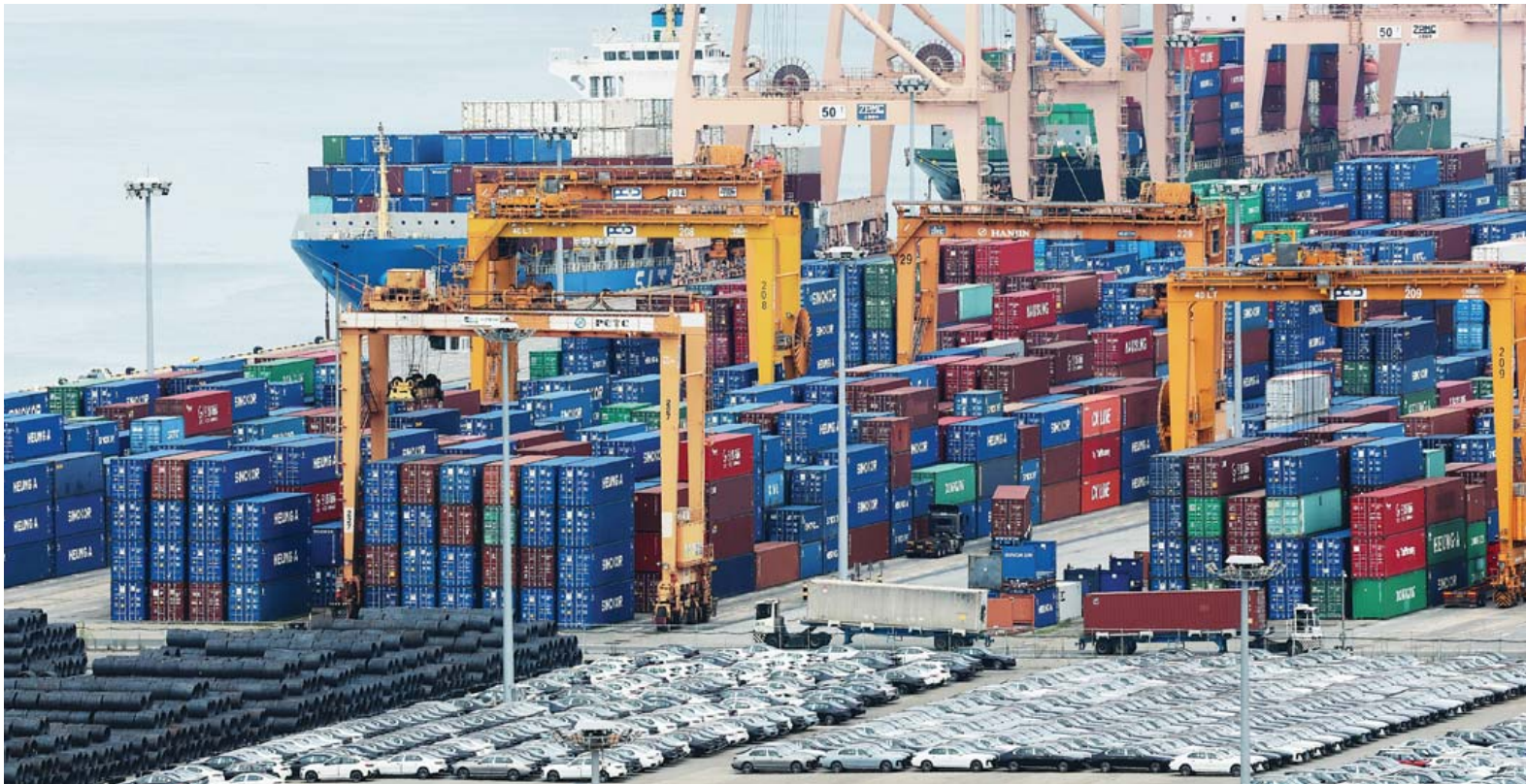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이었던 8월1일을 단 하루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관련기사 24면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농도인 전남 입장에서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車·컨테이너로 가득찬 항구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

는 것으로 적시를 해 줬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

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

한미무역합의 주요 내용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미국

대미 투자
→3,500억달러규모(약 487조원)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달러 조성·선박 건조·MRO(유지·보수·정비)·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 포괄
•대미 투자펀드 조성·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기업들이 경쟁력 보유한 분야 2,000억달러

자동차·트럭 농산물 등 대미 교역 완전 개방
(쌀·소고기 제외)

미국→한국

상호관세
7월 7일(현지시간) 관세서한 25%→15%로 인하

자동차
25%→15%로 인하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

미국산 제품
무관세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규모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세한 내용 발표 예정

연합뉴스

자료:대통령실

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냐”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외교라인에서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李, 전력망 정비 지시…대통령실 “전남권, 혁신기지로”

수보회의서 “재생에너지 패러다임 정비”
정책실장 “에너지산업 ‘제2의 반도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우

를 겪고 있다. 이 같은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라 피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결국 에너지 전환은 필수과제가 됐다”며 “AI(인공지능) 혁명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전력망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전력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재

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데다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기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 산단으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남의 대학 캠퍼스와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에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이를 다방향으로 연결해 차세대 전력망을 구

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가량 반영하겠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를 통해 전력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전력기술과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해 에너지 사업을 장차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전기가 그 자체로 성장산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뽕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수도권 일극주의’로 불

리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요즘엔 고속도로가 꼭 서울로 가지는 않는다.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Today

차별지운 소비쿠폰 재발급 시민 ‘수궁’ 6면

‘박계영의 몸에 좋은’ 제철음식…‘가지’ 14면

양현종, 12시즌 연속 100이닝 ‘대기록’ 16면

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진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원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주소,전화,이메일,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